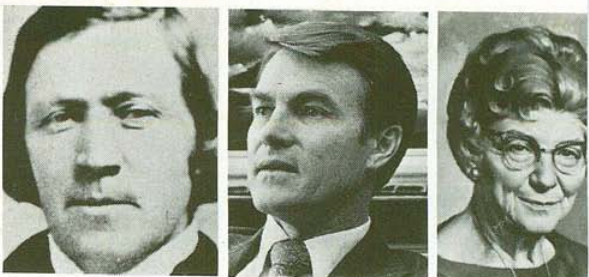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벨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매리온 디 랭스
로버트 디 헤일즈
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성도의 빛 8
1978

차 례

“아이에게 가르치라”...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
초등협회 100년사..... 수잔 오만과 캐롤 매드슨..... 7
미래를 위한 기초..... 나오미 엠 섬웨이자매와 대담... 14
지역 지도자 메시지... 최 옥환..... 17
지역 소식..... 18
케이프타운 어린이들의 신앙..... 19
어린이의 빛..... 20
좋은 이웃 클럽..... 매리 에스 다이버스..... 24
가족의 관심사인 침례..... 27
중이 인형..... 30
오 사랑스러운 아침... 진 더블류 칩먼 33
브리감 영..... 38
범세계적인 교육..... 조 제이 크리스티슨과 대담..... 44
인생의 눈을 뜨다..... 48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회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57호, 제14권 제 8 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8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광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8년
제14권 8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대관장단 메시지

“아이에게 가르치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초 등협회의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 금년에는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초등협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예수는 구세주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간증을 얻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보다 더 어린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를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사랑과 이해와 자비와 인내로써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

다.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으며, 더 가치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협회의 축복을 모든 어린이의 생활에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태초에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돌보고 자녀에게 의를 가르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따스한 잠자리로 보호하고, 자녀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돌보며,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

도록 의복을 마련해 주고, 그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음식을 줍니다. 그러나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는 무엇을 합니까?

추운 겨울에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등교합니다. 또한 따뜻한 방한화도 신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에는 머플러를 두르고 털장갑을 끼는 등,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들이 다른 젊은이들의 그릇된 이념과 생각, 그리고 오늘날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까?

잠수부는 찬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꺼운 고무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해 매마른 인정과 영적인 암흑의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기도와 가족의 단합과 영적인 훈련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적합한 의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가족의 헌신, 사랑, 존경, 이해, 적당한 훈련과 훈육으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친구의 집으로 놀러 가면 부모는 그들이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매일 저녁 집에서 자녀에게 복음의 계획을 설명해 준다면 하루 동안 자녀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느낌은 복음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매주 월

요일 저녁 또는 원하면 언제라도 가정의 밤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적어도 월요일 저녁만이라도 자녀와 함께 앉아 복음을 설명하고 강한 간증을 말해 준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부도덕이 계속되고 불신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나 범죄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혼은 줄어들 것이며,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법정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죄의 주인이요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악령인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적이다.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사이사서 4:14-15)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모범으로 양육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존중심을 길러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빼앗거나 부수거나 파괴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두 배 또는 세 배로—원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훌륭한 시민이 될 것이며 부모에게 명예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스스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모든 규율을 지키는 부모는 그러한 모범과 찬반의 분명한 표현으로써 자녀를 훈련하고 무질서와 모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내적인 훈육은 외부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그것은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건전한 원리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지도할 수 없거나 자녀의 불안한 정신을 제거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많은 청소년들에게서 보이는 놀라운 불손함이 그들의 부모의 불손함에 기인된다는 사실이 가능한 일입니까? 부모가 영적인 일과 종교와 경건한 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서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문과 잡지를 읽고 이 세상이 자녀에

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고 있는지를 아는 부모라면 그들의 자녀는 그와 같은 죄와 잘못된 생각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더욱 강하게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악을 없앨 가정 생활, 훈육, 그리고 훈련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이 세상의 추한 면에 대하여 배울 때, 역시 이 세상의 좋은 면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가족 기도와 영적인 태도와 올바른 가르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이해한다면 그러한 부모는 두 배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 그들의 자녀가 훌륭하고 건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손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고 있던 예언자 리하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과 딸들이여, 보라 너희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대로 무덤에 내려갈 수 없으리니, 보라 너희가 마땅히 양육되어야 할 절차를 따라 양육된다고 하면, 너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앎이라.”(나이 4:5) 리하이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진대, 보라 내가 너희들 위에 축복을 남겨 두어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서 벗겨져 너희들 부모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리니”(나이 4:6)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주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

어 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환난을 겪기는 하였으나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신 일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내 생애에 행한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노라.”(니일 1:1) 니파이는 항상 부모의 보호를 받았으며 부모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물몬경의 작은 부분을 기록한 이노스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라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이 의로운 분이었음을 아노니, 그의 언어로 나를 가르치며 주의 사랑과 훈계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을 돌리노라.”(이노 1절) 이노스는 물론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갔으며, 그가 받은 훌륭한 교육에 대하여 그의 부친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면에 경전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모를 정죄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졌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3:12-13)

현재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죄악 중에

서 자라남…이니라.”(교성 68:31) 우리는 다만 우리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주님의 왕과 여왕, 제사장과 여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주님은 프페드릭 지 윌리암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전히 이 정죄받을 일을 계속하고 있느니라.

“너는…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나니,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지배하고 있도다. 네가 괴로움을 받는 까닭은 곧 이것이니라.

“…만일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네 집에 옳지 아니한 일이 많음이니라.”(교성 93:41-43)

주님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에게 이르노니,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저는 저의 자녀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먼저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교성 93:44)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성 93:49)

주님께서 우리들 부모 중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묻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부가 한 자녀를 세상에 데려올 때 실로 막중한 책임이 부부에

게 맡겨집니다. 자녀에게는 음식, 의복, 잠자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친절한 훈육, 가르침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가 훈련하고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부모의 지도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경전에도 다 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 : 6) 또한 떠난다 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양육된 자녀는 다시 돌아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완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면 팔레스타인의 숲이 황폐하여졌겠으며 언덕이 벌거숭이가 되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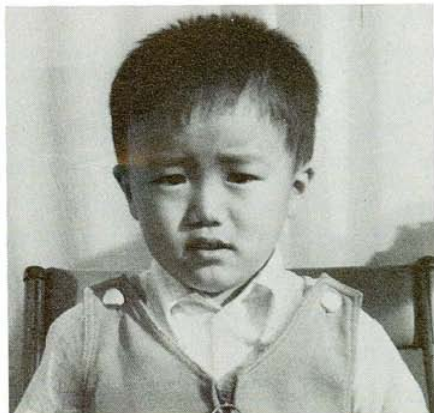
그들의 권세가 꺾이겠으며, 하늘이 철로, 땅이 놋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기근이 땅을 덮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었으며, 백성이 다시 속박되었겠습니까?

바빌론의 모든 아버지들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녀에게 주님의 권고를 가르치고 훈계했다면 그 거대한 성읍이 오래로 덮어졌겠으며, 땅이 황폐해졌으며, 샘이 모두 말라버렸겠으며 성전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떠들며 놀아남으로써 마음이 해이하게 되어 그들에게 임박한 위험을 알아채지 못했겠습니까?

종려나무와 버드나무가 말라버렸으며 땅이 마르고 황폐하여졌겠습니까? 바빌론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

겠으며, 이리와 재칼과 올빼미와 슬픈 짐승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겠으며 목자와 아라비아인이 그 유형의 땅에 거하기를 피하겠습니까?

고대 로마의 모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전쟁에 대하여 가르치는 대신 의로움을 가르쳤다면,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가정을 만들었다면, 모든 부모가 자녀를 서커스나 공중 모임에 데리고 가는 대신에 가정에 모았다면, 그들이 자녀에게 순결과 명예와 고결함과 청결함을 가르쳤다면...고대 로마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의 세력을 펼 수 있을까요? 고대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분명히 북쪽으로부터 침입한 외적이



아니라 로마 제국내의 도덕적인 부패였 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부모가 가정 복음 교육, 가정의 밤, 단합을 도모하는 가족 모임, 그리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단란한 가정 생활을 갖고 수행하였다면 노아의 대홍수나 바벨탑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의 거리가 파헤쳐졌거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기본이 되는 계명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온…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온의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 25-26, 28)

빛을 반사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불을 켜는 것과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모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가정 생활에서 보는 바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주 신전을 방문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는 자신의 신전 생활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배운 자녀는 마음과 생각이 선교사 프로그램에 집중될 것이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저축하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생활, 가정 복음 교육, 부모의 지도, 아버지의 지도력—이러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며, 영적이며 정서적인 질병을 고쳐 주는 치료책이며,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학교 교사나 초등학교나 상호부조회나 주일학교나 (무추얼 활동의 밤)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부모는 교회 프로그램의 도움을 활용하면서 이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밤에서 달성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노력을 들여 우리를 훈련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우리 자신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의롭게 양육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부모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생활을 계획하고 질서를 세우며,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돕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과 훈련을 보충합니다. 초등학교의 목적은 의로운 생활로 어린이를 강화시키고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일생을 통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간증과 신앙을 심어 주는 부모의 노력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그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란 유타주 파밍톤에서 온 상호부조회 역원들과 솔트레이크에서 온 몇 명의 방문 교사였으며, 그중에는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란 1878년에 초등학교의 씨앗을 심게 된 대화였습니다.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는 이 기다리는 그룹의 주인이었는데,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녀는 그녀의 걱정거리 한 가지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남자 어린 아이들이 밤늦게 나돌아다니며 “분명히 좀 큰 아이들은 ‘불량배’라는 이름을 받기에 알맞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로저스 자매의 열두 명의 자녀 중 다섯 명은 유아기 때에 죽었습니다. 나머지 일곱 명의 자녀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복음의 원리라는 굳건한 기초 없이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에게까지 미치었습니다.

그러나 로저스 자매는 걱정만 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로저스 자매는 스노우 자매에게 내놓은 제안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모든 선한 것과 갖추어야 하는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조직이 세워질 수 없을까요?”

스노우 자매님은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관리 역원이며 청년 상호향상회의 관리 역원으로서 스노우 자매님은 존 테일러 대관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해 보기로 동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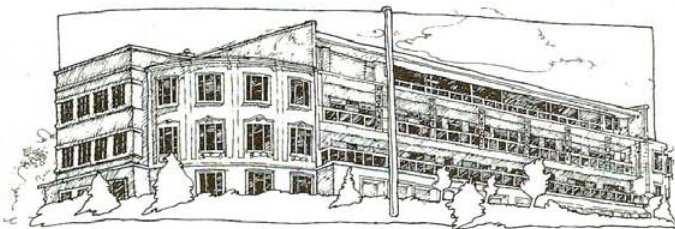
스노우 자매는 후에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의 감독, 존 더블류헤스 감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헤스 감독은 이미 어머니 모임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자녀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헤스 감독은 로저스 자매를 파밍톤의 어린이를 위한 조직을 관리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로저스 자매는 초등 상호향상회—이 명칭은 곧 초등학교로 짧아졌습니다—의 모습을 머리속으로 그려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자매는 어린 소녀에게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면 어린 소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필요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00년사

수잔 오만과
캐롤 매드슨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루이 보우튼 펠트

소녀를 포함시킬 수 있었을까요? 스노우 자매로부터 온 편지는 로저스 자매의 뜻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자매님의 편지를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영감으로 자매님이 지시받고 있으며, 시온의 미래를 위하여 위대하고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이를 캐히 승낙하셨습니다.”

첫번째 모임이 1878년 8월 25일에 갖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헤스 감독의 제언에 따라 로저스 자매와 그의 새로 부름받은 두 보좌는 와드 내의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115명의 소년과 100명의 소녀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를 초대하였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였으나 모두 정시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로저스 자매가 이름한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인하여 모임은 “꽤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시행착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조직의 목적은 분명했으며 로저스 자매는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안팎에서 갖추어야 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의 이념은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필요 사항을 바로 충족시켰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의 지시에 따라 초등학교는 상호부조회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러 지역에 조직되었습니다. 칠십고령의 스노우 자매는 온 지역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진과 그의 회중 시계를 보여 주는 데 지칠 줄 몰랐습니다. 스노우 자매는 나무와 키틀랜드 어린이들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으며, “그 당시 성도들이 지니고 있던 사명감은 현명한 목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 오게 되었던 밝은 정신”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사명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비교적 현재의 초등학교 역원에게 있어서 이 초등학교 모임은 축소한 성찬식과 같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오십 명 내지 육십 명 때로는 백여 명이 학교나 와드의 교실 하나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연령은 4세부터 14세까지였습니다. (12세 소년이 청남 상향회로 옮겨 간 것은 1913년이었으며, 12세 소녀가 청녀 상향회로 옮겨간 것은 1920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는 성인은 초등학교 회장과 보좌였습니다. 때때로 서기의 일도 어린이들이 맡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사도 교제도 반 공과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은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용하여 대화, 낭독, 노래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활동을 찬성하기는 하지만 복음 교육이 등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1880년대 초에 시리즈로 된 책을 준비하였는데, 여기에는 찬송가, 악보, 대화, 낭독물, 그리고 성경에 대한 교리 문답 등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루이 보우튼 펠트(1880-1925)



2년 동안 초등학교를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확장시킨 엘리자 알스노우 자매는 이 작은 조직 자체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30세의 생일을 지낸 지 한 달이 된 루이 브루튼펠트 자매를 최초의 초등학교 본부 회장으로 불렀습니다. 두번째로 조직된 솔트레이크시티 제11와드의 회장인 루이 자매는 자신의 자녀를 가져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1951년 레빈 와즈 팜리 자매가 회장으로 지지받기 전까지 초등학교 본부 회장으로서는 자녀를 가졌던 자매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 지장을 주는 것 같지 않았으며, 루이 자매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루이 자매와 함께 일하던 자매들은 “그녀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놀라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은 “펠트 자매의 ...승인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45년 동안 초등학교에 반영되었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 오랫동안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펠트 자매의 뒤를 이은 메이 앤더슨 자매가 그녀의 평생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펠트 자매의 건강을 걱정한 펠트 형제는 앤더슨 자매에게 그 가 사업 일로 여행을 가는 동안 펠트 자매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앤더슨 자매는 거의 30년 동안 펠트 자매와 함께 있었으며, 그녀는 초등학교 본부 임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이며 현명한 동반자였습니다.

펠트 자매와 앤더슨 자매는 그들의 주요 임무를 여러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마다 여러 주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1895년에 이 두 친구는 유타 대학에서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신기한 유치원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11와드 지하실에 사립 유치원과 탁아소를 세웠으며, 이 새로운 어린이 중심 교육을 초등학교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변화는 어린이들을 연령별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임원들은 각 연령 그룹에 맞는 공과를 준비하는 단계를 취하였으나 그들이 공과를 출판하려 하였을 때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었으며 독지가도 분명치 않았습다. 그러나 1901년에 그들은 공과를 잡지 칠드런스 프렌드에 실리게 하는 승인을 얻었습니다. 펠트 자매는 그녀의 집을 연고지로 하였으며, 공과가 실린 첫번째 잡지를 그녀의 집으로 우송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에서 성공을 거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성공이 안겨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던 펠트 자매와 앤더슨 자매는 교통이 혼잡한 거리에서 목발에 의지한 한 소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어린이들의 건강상의 필요



메이 앤더슨



메이 그린 힝클리

사랑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까? 그리하여 1911년 그로우브스 말일성도 병원에 초등협회 후원의 어린이 병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요양소를 둘러보기 위하여 미국 동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린이들에게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의 전문적인 간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22년 노스탤풀에 있는 낡은 하이드의 집은 말일성도 어린이 요양소와 탁아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어린이들은 자기의 생일날에 동전을 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모인 돈과 다른 모금 계획으로 모인 돈은 이 어린이 병원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1920년대는 초등협회가 그 뿌리를 미국 이외 지역에 박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뉴질랜드와 멕시코에는 1880년대 초반에 초등협회가 세워졌으며, 하와이와 캐나다에는 1890년대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초등협회가 영국에 조직된 것은 1916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초등협회는 다음 10년 동안 겨우 집과 이웃에서만 행하여졌습니다.

1930년에 초등협회는 선교 지역에서 가정 초등협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여, 2년 이내에 스웨덴, 독일, 네델란드, 덴마크, 스위스, 스코틀랜드 및 남미로 퍼져 나갔습니다.

메이 앤더슨 (1925-1939)

초등협회가 국제적으로 확장된 것은 사랑하는 친구 루이 비 펠트 자매가 그토록 오랫동안 봉사하였던 자리를 이어 부름을 받게된 메이 앤더슨 자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35년 동안 본부 임원으로서 봉사하였습니다. 게다가 한 달 모자라는 14년 동안을 회장으로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앤더슨 자매는 온건주의의 펠트 자매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앤더슨 자매님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 어린이들의 복지였어요.”라고 한 본부 임원은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교사에게 불편하거나 부모들에게 어렵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았읍니다.” 그러한 원대한 계획에는 새로운 병원 건립과 자연령에 알맞은 공과 교재 출판이 포함되었습니다.

앤더슨 자매는 거의 일생 동안 봉사해 왔던 초등협회에서 1939년 9월 11일에 해임되었습니다.

메이 그린 힝클리 (1940-1943)

앤더슨 자매의 뒤를 이은 메이 그린 힝클리 자매는 영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여의어 교사로 자라 많은 경험을 쌓은 자매였습니다. 교육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한 그녀는 대부분 독학하였으며, 솔트레이크 진로소 제일 사무소장으로 일하였고 두 차례의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12년 동안 그레나이트 스테이크 청년 상향회를 감리하면서 개인 달성 프로그램을 제정하

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후에 교회 청녀를 위한 이삭 즐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늦게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형제와 결혼하여 자신의 자녀는 갖지 않았으나 힝클리 형제의 전실 자녀를 맡아 키웠으며, 이들 자녀 중에 고든 비힝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감하였으므로 초등학교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매우 놀라 처음에는 그 부름을 받아들일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노던 스테이크(북부의 주)를 감리하는 선교부에서 그를 동반하여 일할 때 그녀의 놀라운 지도력을 보았었던 터이라 아내에게 부름을 받아들일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녀의 재임 기간은 3년 6개월에서 끝났으나 10만 명의 어린이들을 초등학교로 이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선교 사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선교사의 기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는 힝클리 자매의 지도 아래에서 초등학교의 독특성을 이룩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봉사를 나타내어 주는 공식적인 초등학교 설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용감을 상징하는 빨강, 봉사를 상징하는 노랑, 진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파랑색이 초등학교 빛깔로 채택되었습니다. 교사들은 매달 경전 읽기 과제에 따라 경전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초등학교의 사명을 말해 주는 주제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성 68 : 28)



어델 캐넌 하우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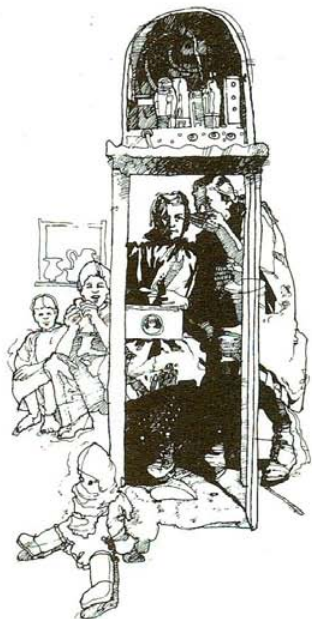
어델 캐넌 하우얼즈 (1943-1951)

힝클리 자매의 헌신적인 친구이며 제일보좌인 어델 캐넌 하우얼즈 자매는 초등학교에서 3,451개의 상자의 장난감과 의류를 모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일을 관리 하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힝클리 자매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일해 보았던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트 스테이크 청녀 상향회에서 수년 동안 힝클리 자매의 보좌로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힝클리 자매가 그녀를 필요로 하자 로스앤젤리스의 가정을 떠나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초등학교를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우얼즈 자매의 재임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새로운 초등학교 어린이 병원을 건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병원은 30년 동안 5,907명의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1938년에 발생한 약간의 불로 건물은 더욱 부적당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건축 설계가 시작되었고 건축 부지가 매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여든 두번째 생일 축하연에서 지역





래번 와즈 팜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은화 1천불이 담겨 있는 구리 상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가 메이 앤더슨 자매가 회장으로 있었던 1938년이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그 돈을 초등학교에 주면서 은화 한 일을 300불씩에 다시 팔게 되면 병원을 짓기에 충분한 기금이 된다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그랜트 대관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업 계획은 지연되어 하우얼즈 자매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동전은 1개당 100불에 팔렸습니다. 결국 그의 관대함으로 인하여 120,000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우얼즈 자매는 어린이들에게 10센트를 현금하여 어린이 병원을 위한 벽돌 한 장을 기증하도록 권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추진하고 호응하여 거의 20,000불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병원이 완공된 후 병원을 둘러보았을 때 한 어린 소년이 안내자의 스커트 자락을 당기면서, “선생님, 어떤 벽돌이 제일 좋은가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우얼즈 자매는 1951년 4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래번 와즈 팜리 (1951-1974)

오랫동안 초등학교 역원으로 일하였던 세 자녀의 어머니요 경험이 많은 학교 교사인 팜리 자매는 힝클리 자매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본부 임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후에 팜리 자매는 힝클리 자매의 제2보좌로 봉사하였고 다음에 하우얼즈 자매의 제1보좌로 봉사하다가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직책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행정가인 팜리 자매는 회장단을 재조직하여 각 스테이크, 워드 그리고 본부 역원이 프로그램의 같은 분야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트레일 빌더(길 닦는 사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소년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였으므로, 1953년에 소년단과 유년단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팜리 자매는 정신적으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4년간의 소년단 프로그램, 거기에서 병원 운영, 칠드런스 프렌드지 출판, 그 외의 오프 프로그램 운영 등은 “마치 암벽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주저하였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암벽일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물려서서 시도해 볼 필요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암벽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 있지요...그곳에 가 보면 안 보이던 숨겨진 사다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소년단과 초등학교의 병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4년, 초등학교 어린이 병원에 부속 건물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속 건물은 팜리 자매의 재임 기간에 건축되었습니다.



초등협회 본부 임원은 항상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팔리 자매는 더 많은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홍콩에서 한 어린 소년이 굽은 다리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어린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할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소년의 가족은 아들이 완치되어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초등협회 어린이 병원으로 보냈다는 것을 아는 팔리 자매는 “이 소년을 불구자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병원측의 결정을 늦춰 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금식하고 기도한 후, 의사는 소년의 다리가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소년은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등협회는 교회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성장하여 갔습니다. 팔리 자매는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통가 등 여러 나라의 초등협회를 방문하였으며, 때때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어린이도 만났습니다.

팔리 자매의 재임 기간에 초등협회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 제정한 협회 및 개편 프로그램에 힘을 입어 그 효율성이 점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어린이를 보다 강화시키고 복음의 원리를 완전하게 가르쳐 주는 주일학교와 초등협회 공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병원 자체의 권리를 벗는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 교회는 초등협회 어린이 병원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에 대하여 통감하고 있는 초등협회는 가정 초등협회와 불구 아동을 위한 특별 초등협회를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를 초등협회로 인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과는 전문적인 학교의 교과 과정처럼 신중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어린이의 초등협회 생활을 통하여 복음의 각 원리가 여러 차례 강조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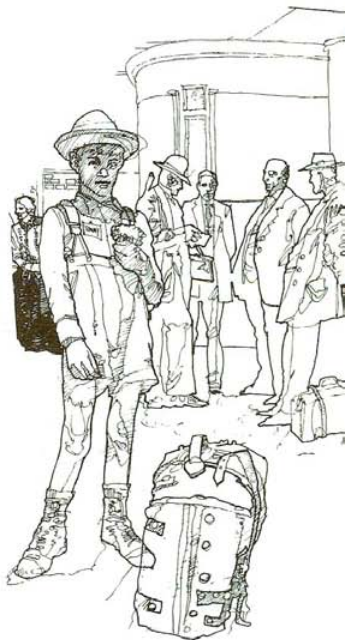
나오미 엠 섬웨이

1974년 10월 5일 이후로 초등협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섬웨이 자매는 초등협회 성장의 다음 세기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는 초등협회도 등록 어린이의 수가 늘어나고 각 어린이가 복음의 가르침으로 강화되어 앞으로 맞게 되는 어려운 난관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보다 잘 준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등협회 역원에게 주는 필름스트립을 통하여 말씀하신 김블 대관장의 목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초등협회의 전반적인 목적은 신권을 돕고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도록 부모를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협회의 축복을 모든 어린이의 생활에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섬웨이 자매의 초등협회에서의 지도력에 대하여는 본호에 실린 그 녀와의 접견을 참조한다.) *



나오미 엠 섬웨이



미래를 위한 기초

초등협회 본부 회장, 나오미 엠 섬웨이 자매와 엔사인지 기자와의 대답



기자 : 초등협회 창립 이래 그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명칭을 가진 다른 단체입니까?

섬웨이 자매 :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필요 사항이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다만 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초등협회는 더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더 많은 곳에서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항상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를 통하여 초등협회에 등록된 어린이의 수는 약 일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 스테이크의 참석율은 68퍼센트입니다.

기자 : 세계 다른 나라의 초등협회의 활동도 미국의 초등협회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섬웨이 자매 : 물론이죠! 옐리나 스펜서 로저스 자매의 초등협회에 대한 열망이 이처럼 온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활에 미치게 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자 : 초등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어

린이의 필요 사항은 무엇이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섬웨이 자매 :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복음을 배워서 유혹이 닥칠 때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진리의 기초를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초등협회의 모든 공과와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침례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소년들에게는 신권을 받고 신권을 존중하도록 준비시키고, 물론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초등협회는 또한 어린이에게 오래도록 지속하는 영향력을 줍니다. 초등협회는 다른 방법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영적인 필요 사항을 만족시켜 주는 영적인 뜻의 구실을 해줍니다.

기자 : 초등협회와 주일학교는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섬웨이 자매 : 두 조직의 교재가 모두 같은 위원회가 마련하기 때문에 주제로써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한 주어진 개념을 두 가지 조직에서 동시에 가르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있지요.

기자 : 초등협회가 가정을 돕는 보조 조직으로 기능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웨이 자매 : 우리는 초등협회가 이러한 방법에서 효율적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아들을 재우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아들은 도둑이 들어올까 무섭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와 아빠와 순경 아저씨가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게다가 우리 집에는 흠쳐 갈 만큼 값진 물건이 없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혼련 비행사반 받지가 있는 걸요.”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나는 그 반지가 제일 값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반지는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 준대요.”

기자 : 초등학교에 참석하는 비회원 어린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들을 선교사에게 소개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밟습니까?

섬웨이 자매 : 초등학교 교사가 비회원 어린이의 이름을 초등학교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회장은 와드 협의회의 회장으로 명단을 가져 가지요. 여기에서 스테이크 선교사를 소개할 것인가 복음 선교사를 소개할 것인가를 신권 지도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기자 : 초등학교의 구도자 소개가 많은 침례 개종자를 내는 좋은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섬웨이 자매 : 그렇고 말고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웃 아이들과 함께 딸을 “어린이들을 위한 물문 교회”에 나가게 한 어느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물문이든지 아니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모든 아이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관심과 사랑과 충성을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제 아이를 잘 보살펴 주기 때문에 능히 보낼 만하였습니다. 매주 제 딸아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제게 이야기할 거리를 한 보따리씩 갖고 집이 왔어요. 별로 오래지 않아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래서 선교사를 찾았읍니다... 새로운 세계가 저희 가정에 찾아 들게 되었습니다...저의 딸아이가 뛰어들어 와서 제게 ‘엄마, 나도 초등학교에 보내 주세요, 네? 엄마.’라고 조른 이후 우리의 생활에는 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기자 : 초등학교의 경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섬웨이 자매 : 경건을 가르치기 위한 완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조직은 초

등학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 프로그램은 조용히 하게 하는 것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경건이란 순종, 겸손, 존경심, 감사 그 밖에 그리스도다운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프로그램이 모든 어린이와 교사와 지도자로 하여금 참다운 경건의 정신을 길러 보이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회에서 얻는 경험이 모든 어린이에게 영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에게도 역시 영적인 경험이 된다는 의미도 되지요.

기자 : 초등학교는 어떻게 소년으로 하여금 신권을 받도록 준비시켜 줍니까?

섬웨이 자매 : 10, 11세 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 소년에게 신권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들 소년에게는 아론 신권 회복 또는 집사의 의무 등과 같은 신권에 관한 공과를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단이 불꽃반을 방문하여 신권 준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초등학교 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집사 자신에게도 영적인 경험이 됩니다.

소년들은 초등학교의 모든 반에서 신권을 받기 위한 준비에 대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 필수 요건을 살펴보면, 소년이 십일조를 바치고, 기도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성구와 신앙개조를 암송하며, 계보 사업을 하도록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들은 신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회복되었고, 왜 어떻게 이것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벨기세택 신권과 아론 신권의 각기 다른 직분에 대하여, 그리고 집사가 되면 받게 되는 책임에 대하여도 배웁니다.

또한 11월에는 11세 소년과 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신권 예비 모임”을 갖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년들

이 신권의 권세를 이해하고 감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 참여 하였던 비활동 아버지가 자신의 신권의 책임을 다시 상기하게 되어 신권을 존중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구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 초등학교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섬웨이 자매: 그러한 어린이의 수가 소수인 곳에서는 부모나 초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정규 초등학교에 그들을 참여시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원들이 이러한 불구 아동을 돕고 서로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것은 훌륭한 경험 이 되지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는 대부분의 경우 정규 초등학교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두세 스테이크에서 정서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 열 명 내지 열 다섯 명으로 작은 초등학교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기자: 특별 초등학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섬웨이 자매: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침서에 지시 사항이 나와 있고, 본부 임원회가 준비한 소책자도 있어서 요청에 따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매일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자: 가정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섬웨이 자매: 가정 초등학교는 질병이나 거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초등학교의 지도자가 되며, 감독이나 지부장에 의하여 이 직에 부름을 받고, 초등학교 회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메릴랜드주, 왓도프와 애코키크는 회원들의 중심지이지는 하지만 예배당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와드 초등학교에 참석하는 일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와드 초등학교 회장은 이 가정 초등학교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단 보좌와 함께 이 초등학교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이 작은 초등학교는 봄에 갖는 어린이 성찬식 발표와 그 밖의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의 반 정도가 비회원이었는데 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모들은 그를 초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그룹이 지부로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와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요.

기자: 교사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섬웨이 자매: 그들이 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성스러운 부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매주 초등학교 모임에서 영적인 경험을 맛보아야 합니다...또한 즐거운 경험도 가져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기대하여야 하고, 교사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가 있습니까?

섬웨이 자매: 우리는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초등학교 모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성장에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와 함께 동반자로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범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는 이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

케이프타운 어린이들의 신앙



항상 햇빛이 빛나던 케이프타운의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 어두웠습니다. 왜 그럴까? 비가 오려나? 어린이들은 걱정하였습니다.

소년 소녀들이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리던 특별한 오후는 드디어 왔는데 폭우로 그들이 계획하였던 과자 판매는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포우리 자매님은 날씨에 관계없이 어린이들이 교회에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되었던 시간에 어린이들은 비를 맞으면서 교회로 갔습니다.

포우리 자매님은 예나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로 어린이들을 반기면서, 구운 과자를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판매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외에서 판매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를 그치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겠어요.” 포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그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를 계속 갖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를 계속 갖기

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 주실 거예요.”

포우리 자매님의 음성에는 확신이 차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우리 자매님은 비가 그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는 그쳤습니다.

여러 날 동안 쉴새없이 퍼붓던 비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어린이들이 식탁을 밖으로 가져 나오고 그들이 가지고 온 과자를 진열할 때 태양은 어린이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판매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빈 식탁을 예배당 안으로 들여놓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포우리 자매님, 만일 비가 안 그쳤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라고 나중에 한 초등학교 역원이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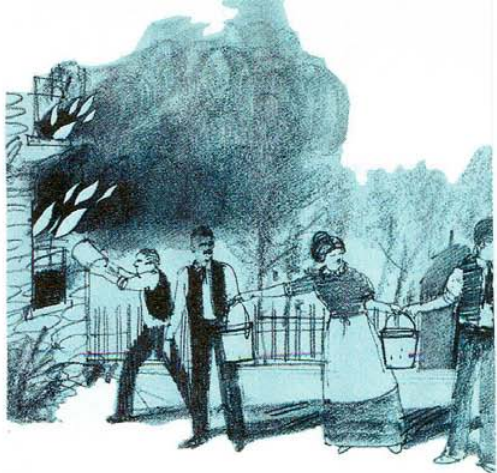
34년간을 한결같이 어린 소년 소녀를 사랑하고 가르쳤던 이 자매님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던 걸요.” *

“불이야! 불이야!”

이 소리는 유타주 파밍톤이라는 작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이 마을에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근처의 시내에서부터 불이 난 건물까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서 양동이의 물을 건네 주어 끄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면 불은 거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리고 말며 안에 있는 물건도 거의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생애를 파밍톤에서 보



낸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자매는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집 밖으로 뛰어나가 여름의 뜨거운 대기 속

어린이의 벗



을 치솟는 연기 나는 곳을 쳐다보았다. 그 집은 1902년 여름에 자신의 집은 세를 주고 남쪽으로 20마일 가량 떨어진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하여 그녀와 함께 묶고 있는 친구들의 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끔 파밍톤으로 돌아와서 일을 돌보고 겨울을 위한 과일을 저장해두기도 했다.

오렐리아는 즉시 바케츠 행렬에 가담하였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옷이나 물건을 생각하기에 앞서 친구가 당한 손해를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층 자기 침실 창문

곁에 있는 책상에 둔 초등학교 기록부에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 기록부가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건물 전체가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저는 몹시 슬펐습니다.” 후에 오렐리아는 이렇게 말하였다. “기록부만 타지 않는다면 옷이 모두 타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렐리아는 친구를 빈 집으로 옮겨 다시 가사 일을 돌보게 하였다. 솔트레이크로 돌아온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불이 휩쓴 집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기록부를 잃은 것 때문에 심히 상심한 그녀는 다음 주에 혹시 초등학교 조직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또 다른 기록부를 만들어 불 양으로 파밍톤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감독을 찾았을 때 그녀가 기도했던 기적의 뉴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그 순간을 설명하였다.

“모로나이 셰크리스트 감독은 (불이 났을 때) 이층으로 뛰어올라가 내 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가 물건을 조금이라도 구해 보고 싶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에 들어섰을 때 방 안에 연기가 짙차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질식할 지경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밖



으로 나가야했습니다...그는 창문 가까이로 갔을 때 손을 뻗어 책상보를 잡고는 손에 잡히는 책들을 꾸러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부가 불에 타지 않았읍니다.”

이 기록부에는 첫번째 초등학교 이야기와 어떻게 초등학교가 조직되었는가 하는 내력이 실려 있었다. 이 기록은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의 일대기의 기초가 되었다. 후에 오렐리아도 어린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 값비싼 보배
하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여
한 아이도 잃지 않게 해주기를”

오렐리아아 어린이를 위한 조직, 특히 어린 소년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과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조직에 대하여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1878년 3월이었다. 그녀는 어린이들을 돕고 싶었으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기도하였다. “내 마음속에는 강한 동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읍니다.”라고 자서전에 그녀는 기록하였다.

몇 주 후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가 상호부조회 역원을 만나기 위하여 파밍톤으로 갔다. 스노우 자매는 동반자 에멀린 비 웰즈 자매와 함께 기차로 솔트레이크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오렐리아의 집에 들렀다. 로

저스 자매는 소년들에 대한 그녀의 관심에 관해 말하면서 그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훌륭한 남성이 갖추어야 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직을 가질 수 없는지 물었다.

스노우 자매는 “잠시 아무말도 하지 않더니, 그러한 조직을 가질 수 있는지 대관장단에게 여쭙어 보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브리감 영 대관장이 사망한 이후 아직 교회 회원으로부터 대관장이 지지되지 않았으므로 존 테일러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자 대관장 서리로 봉사하고 있었다.

로저스 자매는 이 문제를 테일러 대관장과 함께 이야기했으며, 테일러 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밍톤의 존 더블류 헤스 감독에게 몇몇 자매를 지도자로 부르도록 요청하였다. 로저스 자매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때까지 소녀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소녀가 없이는 모임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들었읍니다...”라고 로저스 자매는 말하였다. 그리하여 소녀들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이 조직의 명칭을 “초등학교”라고 부르기로 제안했으며 루이자 헤이트와 헬

렌 엠 밀러가 이 조직의 보좌로 선택되었다.

헤스 감독은 이들 자매들에게 지역내에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모임에 초대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로저스 자매는 약 112명의 소년과 112명의 소녀들이 등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와드의 모든 회원과 함께 모든 어린이들이 1878년 8월 11일 일요일에 갖는 공개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되었다. 이 모임에서 이들 자매들은 헤스 감독에 의하여 파밍톤의 초등학교를 감리하도록 성별되었다. 헤스 감독은 스스로 초등학교에 참석하거나 다른 신권 소유자에게 위임시키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첫번째 초등학교가 조직된 직후에 스노우 자매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

“하늘로부터 온 영감으로 자매님이 지시받고 있으며, 시온의 미래를 위하여 위대하고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사와 모든 거룩한 자들과 특히 장막 저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에서 기적적으로 구해진 로저스 자매의 기록에는 1878년 8월 25일에 있었던 최초의 초등학교 모임에 많은 어린이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에서 그녀는 초등학교

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어린이들이 이 작은 모임을 갖게 된 동기를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순종,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도, 시간 엄수 및 좋은 태도 등과 같은 주제가 자주 거듭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맨 앞에 앉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키대로 앉았습니다. 적당한 때에 가장 작은 어린이가 일어나 동시를 암송하고 다음 줄의 어린이들은 성경 질문에 답하고 어떤 때에는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반에서는 동시를 낭독하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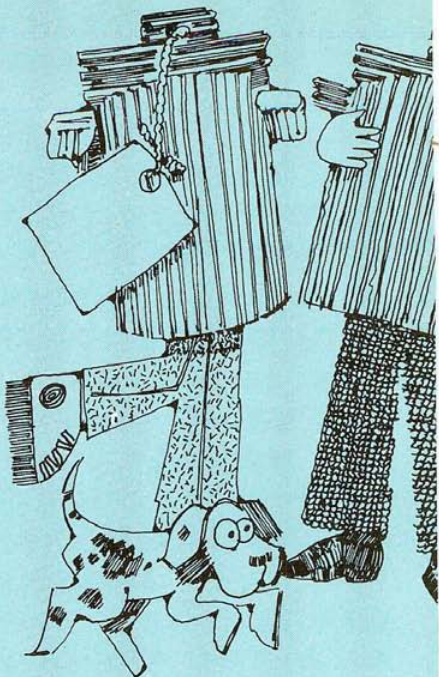
“...다음해 봄에 우리는 마을의 공터를 빌렸으며, 초등학교는 앞으로 올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상호 부조회 밀과 함께 자라도록 콩과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금년도(1978)에는 온 세계의 초등학교의 소년 소녀들은 최초의 초등학교를 기억하고, 초등학교의 창설에 공이 큰 로저스 자매와 다른 사 람들을 기리게 될 것이다. 1878년 8월, 유타주 파밍톤에서 등록한 220여 명의 소년 소녀들로부터 시작된 이 어린이를 위한 영감받은 조직은—수천 명의 헌신적인 초등학교 역원에 의하여 인도되어—현재 그 회원 수는 거의 오십만에 이르고 있다. *



좋은 이웃 클럽

매리 에스 다이버스



조와 코니는 방학이 시작된 지 두 주 일밖에 안되었지만 벌써 여름 방학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슨 재미나는 일이 없을까?” 조가 물었다. “매일 똑같은 놀이만 되풀이하니 이제 싫증이 났어.”

“나도 그래. 우리 클럽을 시작해 볼까?” 코니가 제안하였다.

“그저 좋은 생각이다.” 조가 찬성했다. “무슨 클럽을 만들까?”

“일하는 클럽이 어때?”라고 코니가 대답했다.

“난 일하기 싫어. 재미가 없단 말야.”라고 조가 대답했다.

“재미있을 수 있어. 어떤 종류의 일이나에 따라 다르거든.” 코니가 말했다.

“어떤 일인데?” 조가 물었다.

“많지 뭐.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잖니?”라고 코니가 대답했다.

“재미있겠는데!” 코니가 웃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우리 좋은 이웃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제안하였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하자.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코니가 물었다.

“아빠가 그러셨는데 차고에 있는 쓰레기통을 큰길에 내다 놔야 한대. 내가 쓰레기통을 내다 놓테니까 너는 차고를 청소해.”

“그래 좋아.” 코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쓰레기통이 큰길에 내놓여져 있고 차고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눈을 의심할 정도란 말이야.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현관문에 이 쪽지가 붙어 있었어.”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보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종이 쪽지를 읽었다. “좋은 이웃 클럽이 다녀갑니다.” 조와 코니는 식탁에 마주앉아 서로 쳐다보며 말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였다.

다음날 아침, 조의 친구 빌리가 찾아왔다. 그도 역시 뭔가를 하고 싶어하던 참이어서 조와 코니는 좋은 이웃 클럽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 좋은 생각이구나.” 빌리가 말했다. “나도 같이 할 수 있겠니?”

“물론이지.” 조가 대답했다. “너 혹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아니?”

“응, 알야. 간밤에 할머니께서 이가 아프셔서 눈을 뜬 채 밤을 새셨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아

침 일찍 치과에 가셨기 때문에 설것이랑 청소를 못하셨어.” 빌리가 말했다. “우리 엄마를 도와 드리지. 병원에서 오시면 무척 피곤하실 거야.”

“자, 가자.” 코니가 외쳤다.

빌리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 둘러보았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할 때까지 좀 쉴 수가 있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날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을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부엌에 들어갔을 때 선반 위에 놓인 종이 쪽지를 보았다. “좋은 이웃 클럽이 다녀갑니다.”

빌리는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기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빌리.” 다음날 조가 물었다.

“글쎄.” 빌리가 대답했다. “다른 아이들도 이 클럽에 가입시켜서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떨까?”

“제인한테는 부탁할 수 없어. 편도선을 수술했거든.” 코니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겠네. 우리 제인을 위하여 뭔가를 하자.”

오후 늦게 제인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제인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 보니 종이 쪽지가 붙어 있는 예쁜 포장지로 싼 꾸러미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좋은 이웃 클럽이 다녀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좋은 이웃 클럽이 너한테 선물을 보냈구나.” 제인의 어머니는 제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게 뭐예요?” 제인이 물었다.

“네가 퍼 보렴.”

“어머니!” 제인은 상자를 열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야기 책이에요. 편도선이 다 나올 때까지 읽을 수 있겠어요.”

날이 가고 주가 바뀌면서 좋은 이웃 클럽은 자꾸만 커져 갔다. 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모두 새로운 의견을 갖고 있었다. 얼마 안 가서 온 마을 사람들은 좋은 이웃 클럽의 훌륭한 일과 종이 쪽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허리를 잘 굽히지 못하는 에드워드 할아버지는 빌리의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그의 쓰레기통을 치워 주었다고 말하였다.

제인의 어머니는 코니의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비가 오기 전에 빨래를 걷어서 접어 놓았더라고 이야기했다.

혼자 살고 있는 존스 부인은 그녀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와서 현관을 청소하고 가구의 먼지를 털어 놓았다고 이웃 사람에게 말하였다.

조지의 어머니가 새 아기를 낳고 병

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름다운 꽃이 그녀를 반겼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행하여진 곳에는 항상 “좋은 이웃 클럽이 다녀 갑니다.”라는 쪽지가 있었다.

좋은 이웃 클럽은 너무나 바빠 여름 방학을 보냈다.

학교가 시작한 지 조금 지났을 때 제인의 어머니가 에드워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좋은 이웃 클럽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이번 주에는 놀랄 만한 일이 아무에게도 없었거든요.”

에드워드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여 좋은 이웃 클럽의 비밀을 발견했었던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제인의 어머니에게 그가 알아낸 것을 이야기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여름 방학 동안처럼 좋은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게 되어서 그래요.”

제인의 어머니가 이것을 코니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코니의 어머니는 조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곧 어른들은 좋은 이웃 클럽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클럽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비밀리에 계획이 수행되었다. 다음 토요일 오후, 클럽 회원은 에드워드 할아버지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도착하자 에드워드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하고는 방을 나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뒤에는 여름 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따라 들어왔다. 그들이 합창이라도 하듯이 “좋은 이웃 클럽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어린이들은 깜짝 놀라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즐거운 여름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다. *



가족의 관심사인 침례

침례실에서 가족과 함께 서 있으면서 나는 어린 손자 클레이튼이 수줍은듯이 아빠와 함께 침례탕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팔을 직각으로 들고 침례 기도를 드린 후 손자를 물 속에 넣었습니다.

폐회 찬송과 폐회 기도가 끝나자 새로 침례받은 어린이의 가족은 경건하게

예배당을 나섰습니다. 후에 침례를 축하하는 모임을 가질 때 손자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깨끗한 파란 물 속에서 침례를 받으셨나요?”

“아니.” 나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례를 받았을 때는 카펫이 깔린 침례실도 없었고 조용한 음악이나 영적인

말씀도 없었던단. 흰 칠패복도 없었고 친척들이 칠패탕 위에서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손자들이 졸라 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칠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남유타에 허리케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일날에 허리케인 운하에서 칠패를 받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생일을 나흘 앞두고 운하가 무너졌습니다.

농부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복숭아 과수원과 전초밭은 말랐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강으로 가서 무너진 곳을 고쳐보려 하였으나 워낙 파괴된 곳이 컸습니다. 생일을 하루 앞둔 나는 물 한 방울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하의 등성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물은커녕 뜨겁고 마른 바람으로 운하의 밑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운하가 말랐으니 어떻게 칠패를 받죠?”

“네 언니들처럼 뜨거운 유황천에 가면 될 거야.” 라고 어머니는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들 생일은 겨울이었잖아요. 7월에는 뜨거워서 데게요!”

엄마는 날짜를 연기하도록 제안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여덟번째 생일날에 칠패를 받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따라 와 봐.”

소들이 물을 마시도록 마련된 물통이 소 우리 바깥 살구나무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들은 울타리의 구멍 사이로 머리를 내밀고 이 물통의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칠패를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푸른 이끼가 뚱뚱 떠 있는 긴 물통을 내려다보았을 때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빛자루로 통을 깨끗이 쓸어 내고 맑은 물을 담아 놓으면 괜찮아.”

“하지만 엄마...” 나는 와락 울어 버렸습니다.

“운하가 고쳐지면 곧 물이 들어오게 될 거야.” 엄마는 나를 안아 주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렌 아저씨가 해질 무렵에는 운하가 다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두워지자 물줄기가 보일 것을 바라면서 더욱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진흙 바닥의 갈라진 틈은 더욱 깊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여름철에 사용하는 복숭아 과수원의 칠패에 누웠습니다. 저녁 하늘을 쳐다보며 나는 첫번째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내일까지는 운하를 고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잠시 후 우리 집 위에 있는 득의 높은 곳의 문을 통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서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바위에 부딪히며 도랑을 흘러갔습니다. 운하는 해가 지기 전에 고쳐졌으나 물이 먼 곳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늦게 흘러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인 다음 베개를 끌어안고 노래하는 물소리를 자장가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가 되니 새로운 강의 찌거기나 자갈 등은 운하를 흐르는 동안 씻겨져서 평온하고 부드럽게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깨끗한 흰 칠패복을 입었고 렌 스펀드러브 아저씨는 그의 빛 바랜 양복을 입었습니다. 엄마가 우리와 함께 운하로 왔습니다. 강둑을 들어선 버드나무 아래에 나의 소꿉 친구들과 사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렌 아저씨가 미끌미끌한 진흙 길을 내려가 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이 춤을 추었습니다. 버드나무 잎새 몇 개가 배처럼 미끌어져 지나갔습니다. 렌 아저씨가 칠패 기도를 드릴 때에는 바람마저도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 속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렌 아저씨는 나를 물 속에서 꺼내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숨을 다시 쉴 때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우 기분이 좋았으며 사랑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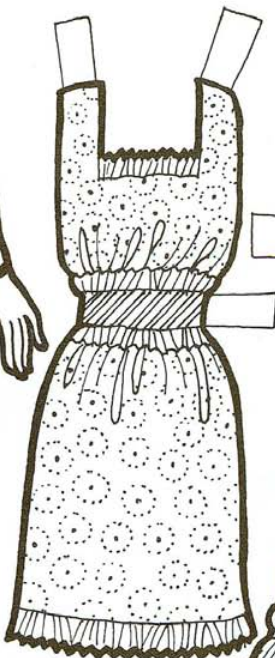
“엄마, 저 칠패받았어요!”라고 나는 의쳤습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는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전에 칠패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말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나를 엄마가 꼭 껴안아 주었을 때 나는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종이 인형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가
1878년 8월에
초등협회를 조직하였다



스테이크 합동 노변의 밤

지난 6월 10일, 서울과 서울 서 스테이크는 4와드에서 이 호남 신임 부산 선교부장 송별을 위한 합동 노변의 밤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5시 반부터 양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평의원, 감독/지부장단과 한국을 방문 중인 전 서울 선교부장 팔머 박사 부처가 동석하여 간단한 음료를 들면서 이 호남 부장의 새로운 부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노고를 당부하였다.

6시 반부터 가진 합동 노변의 밤에서는



말씀하는 이 호남부장의 부인 박연순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 주최 청인 미술 전시회 성료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서 스테이크 제 2와드 2층 홀에서 서울 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의 제1회 청인 미술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제2와드의 임 승진 형제, 임 승훈 형제, 박 수신 형제, 제6와드의 손 정분 자매, 제7와드의 권 용현 형제, 서 은경 자매, 김 혜연 자매, 문 연희 자매, 김 미경 자매, 제9와드의 국 경숙 자매, 구 영란 자매 등이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신학 연구원 미술반에서 이 준구 형제, 임 광량 형제, 김 호진 자매 등이 찬조 출품을 하였다.

전시회 기간 중 300여 명의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였으며 10일에 그 막을 내렸다.



함께 노래하는 이 호남 부장가족

먼저 팔머 전 서울 선교부장 부처의 말씀이 있었으며 이어서 이 호남 부장 가족의 말씀과 노래를 들었고 끝으로 이 호남 부장의 말씀을 들었다.

이 호남 부장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것을 여행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올바른 지상의 여행을 마치자고 강조하였다.

이 호남 신임 부산 선교부장은 1954년 9월 5일에 침례를 받은 한국 물론 초창기의 회원으로서 지부장, 지방부장, 선교부장단 보좌, 신학연구원 원장,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했고,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 대학교 교육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인 박 연순 자매와는 1963년 12월 21일 삼척지부(현 3와드)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다.

미술품을 관람하는 방문객



어린이 각종 예방 접종

최근에 대관장단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것을 각 부모에게 당부하시면서 특히 어린이에게 필요한 각종 예방 접종을 적시에 실시하여 자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권고하였다.

대관장단은 메시지를 통해서 어린이 예방 접종을 소홀히 하여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서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만 명 정도의 어린이가 소아마비, 홍역, 풍진, 디프테리아,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파상풍 등의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당국의 통계를 인용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모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부모들은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예방 접종을 적시에 실시하여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도록 강력히 권고 받고 있다.

인하대학교 킹스맨 클럽

인하대학교에 교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킹스맨 클럽이 생겼다.

학교 내에 참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알리자는 목적으로 세워진 킹스맨 클럽은 그 첫 활동으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시회를 가졌다.

인천 와드와 신학 연구원, 서울 선교부의 후원으로 가진 이번 전시회에서는 구원의 계획, 복음의 회복, 암과 흡연 등 자세히 설명된 그림을 전시하고 행복의 추구, 물론 소개 등의 영화도 상영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동대학 총장님도 관심을 갖고 전시회장을 둘러 보시고 가정의 밤 책을 가져가셨고 교수님을 비롯해서 800여 명의 학생이 전시회를 관람했다. 킹스맨 클럽 회원 22명 중 12명이 교회 회원이다.



서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원들

제 2와드 상호부조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국 전역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각 와드/지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정다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2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으며,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손수 마련한 따뜻한 음식과 춤과 노래로 가이없는 회생으로 길러 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렸다. 이 모임을 마치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서울 서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고 옥진 자매와 함께 초창기 한국 상호부조회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김 도필 자매를 방문하여 준비해간 음식을 대접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84명의 성도가 참석하였다.

전시회를 관람하는 방문객



주말의 삼림지는 짙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이윽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카메라맨들은 촬영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비가 내렸다. 그들은 기도를 드렸다. 비는 전보다 더 많이 내렸다. 1975년 봄의 이번 한 주일 동안 영화를 완성하지 못하면 다시 이러한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했다. 계절은 곧 바뀌게 될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주연 배우는 다음 금요일에 떠나야 했던 것이었다. 일요일 아침 장비 기사들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모든 장비를 조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날씨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비가 그쳤다. 태양이 솟아오르자 그들은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아

름다운 안개를 볼 수 있었다. 키가 큰 나무에 비를 맞은 잎새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으며 새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연출해 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축복으로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아침, 브리감 영 대학교 영화 연출과에서는 “첫번 시현”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예언자 요셉의 역을 맡은 스튜어트 피터슨은 요셉 스미스가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게 기도를 드렸던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에 가졌던 생각으로 높이 자란 풀 속을 걸었다.

영화 “첫번 시현”은 교사 보조 자료와 선교 도구로서 제공하려고 교회가 제작

37페이지에 계속

오 사랑스러운 아침

진 더블류 칩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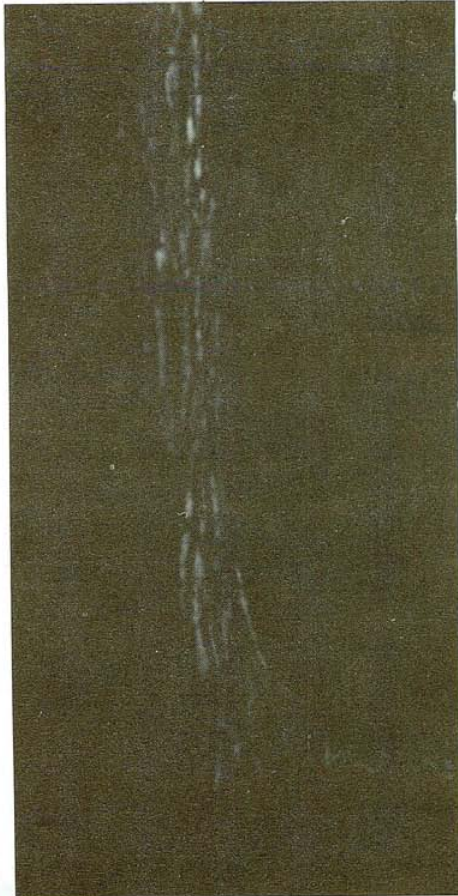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의 배도와 암흑의 수세기가 지난 후 하나님은 다시 인류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1820년 뉴욕주 팔마이러에서 14세의 소년 요셉 스미스의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계시가 주어졌다.

“내가 열 다섯 살 되던 해)우리가 살던 곳에서 종교 문제에 관하여 굉장한 동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 지방 모든 교파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5)

“이러한 대혼란기에 있어서 나의 마음은 진지한 반성과 커다란 불안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8절) 모든 교파가 다 옳을 수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혼란을 빚으시지는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에 나는 이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웬트워스 편지, 3문단)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요



같았습니다.” (12절)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12절)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이를 실행해 보려고 나는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습니다.” (14절)

“내가 이전에 미리 계획하여 둔 곳에 은밀

셉 스미스 2서 : 11)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히 나아가 주위를 살펴보고 나 혼자 있을
을 확인한 다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읍
니다”(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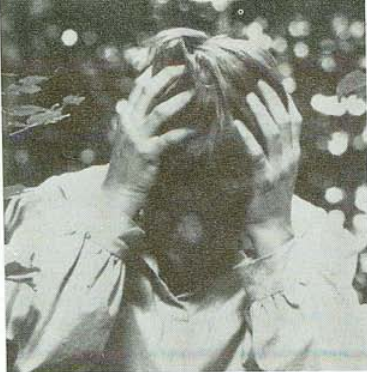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나는 어떤 힘에 의하
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
되어 저항력을 잃고 혀가 굳어 버려서 말조
차 할 수 없었습니다.”(15절)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았으며, 한동
안은 내가 이대로 곧 죽어 버릴 것만 같았

읍니다.”

“...거의 실망하여...나의 몸을 피멸 속에 내
던지려는 순간,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
등을 보았으며 그 빛기등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읍니다.”
(15-16절)

“이 빛 기등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
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 났음을 깨달았으며”
(17절)



“그 빛이 내 위에 머무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17 절)

“그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늘 덮인 숲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뉴욕주 북부에 있는 언덕에서 어린 소년 예언자가 받았읍니다. “모든 교회 중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입하여야 합니까?” 요셉은 겸손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무 곳에도 속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무 곳으로도 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동시에 충만한 복음이 앞으로 언젠가 나에게 알려지

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읍니다.”(웬트워스 편지, 3문단)

다시 한 번 하늘이 문을 열었고 아담, 아브라함, 모세, 바울 등이 하였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150여 년 전 아버지와 아들은 어느 봄날에 숲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을 의뢰한 역사 영화이다. 대본은 요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은 후 어느 교회가 옳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던 1820년 어느 봄날에 대한 요셉 스미스 자신의 해설로 이어진다.

첫번째 아침의 아름다움에 이어 바쁜 촬영의 한 주일이 이어졌다. 목요일경에 다시 날씨는 나빠졌으며 구름과 비가 더욱 심했다. 아직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장면은 밝은 햇빛을 받으며 찍어야 하는 장면이었다. 요셉이 밝은 낮에 집으로 뛰어가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 그들은 18 피트짜리 카메라대를 숲과 요셉의 집 사이에 있는 들 가운데에 설치해 놓고는 다시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흐르자 구름이 걷혔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그 장면 촬영이 끝나기 직전에 구름이 다시 덮였고 다시 어두움이 깔렸다. 제작자이며 감독인 데이비드 제이콥스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촬영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던 것이었지요. 곧 영화의 첫장면이었거든요.”

첫번 시현에 대한 요셉 자신의 독백에서 그는 숲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갑자기 그는 문자 그대로의 어두움—“놀라운 힘…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악의 영향력을 영상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일주일 전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데이비드 제이콥스씨는 요셉이 쓴 시현에 대하여 최근에 발견된 연구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

읽던 중 몇 개의 구절이 그의 눈에 번쩍 띄었다.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기도를 하려 애썼으나 할 수가 없었다. 발걸음 소리는 더욱 가까이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런 발걸음 소리를 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나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딘 제시 “첫번 시현에 대한 초기 설명”, 비와이 유 학회, 1969년 봄, 284 페이지) “바로 이것이 암흑의 장면에 맞추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사실이었습니다.”라고 데이브는 말하였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묘사해 내는 것이었다. 거룩한 하나님과 아들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을 내려야 할 주요한 사항이었다. 그때 총관리 역원의 한 분이 제시 스테이(영화 제작과 주입)에게 첫번 시현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위 일체가 아니라 별개의 개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필름에 담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첫번 시현”과 같은 교회 영화를 제작하는 일은 다른 영화 제작과는 다르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음향 기사, 카메라맨, 배우, 감독, 의상 및 분장사 등 모두가 독특하고 비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이 영화가 선교사로서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일이 올바르게 시행될 때 간증이 강하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이콥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영화 제작사의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 영적인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브리감 영

유진 잉글랜드의 연재 기사에서 발췌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1877년 8월 29일에 세상을 떠난 브리감 영은 사막에 꽃핀 350여 개의 도시와 마을의 지도자였으며, 100,000여 명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대변자인 예언자였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라미 순교당한 후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었다. 브리감은 수천 명의 성도들을 1,400마일이나 되는 길을 이끌어 광야에 문명 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는 위대한 연설가요 선교사였다. 그는 예술을 발전시켰고, 대학교와 아카데미를 설립하였으며, 지역의 지사로서 일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두번째 예언자인 브리감 영의 이같은 성과는 일반적으로 말일성도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마 어떤 이들은 브리감 영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개종 이야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물문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당시, 브리감 영은 학교 교육이라고는 11 $\frac{1}{2}$ 일간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학교 교육대신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집에서 교육시켰다. 어머니는 그에게 읽기를 가르치셨으며, 아버지는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브리감의 부모는 헌신적인 청교도적 감리교인이었다. 브리감은 부모님의 엄격한 충성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또는 거부하지도 않았다. 오히

려 그는 남다른 독립심을 발전시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여 자신의 종교를 결정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후에 그는 어린 시절에 지냈던 성숙한 통찰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나는 어렸을 적에 매우 엄격한 테두리 안에 갇혀 생활하였습니다. 일요일에는 반 시간 이상 운동삼아 걷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읍니다… 어렸을 때 무도회에 갈 기회는 한 번도 없었으며 열 한 살이 될 때까지 바이올린의 매혹적인 음울을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그때 나는 그와 같은 것을 듣는다면 나는 지옥으로 직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읍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밟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도회에 가게 하고, 음악을 공부하며, 소설을 읽고, 그 외에 무슨 일이든지 하여 자신의 전문을

뉴욕주 오리리어스에 있는 웨이트 집. 브리감은 1820년대 초에 이 집의 건축을 도왔음.



넓히고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정신을 향상시키고 몸과 마음에 자유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설교집 2:94)

브리감 영은 어렸을 때부터 검약하고 근면한 생활을 배웠다. 그는 의자만드는 사람과 페인트공으로 수련받았다. 18살 때 브리감은 이 부분에 스스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기술을 익혔다. 그는 조그마한 목공소를 차렸다. 그는 기술자로서 자립하였는데, 서부 뉴욕주에서는 아직도 그의 난간 장식, 현관 채광창, 문틀, 지붕 다락방 창 그리고 벽난로 등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훌륭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평생의 생활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참석하여야 하듯이, 나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정직하고 책임감있게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종교의 일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된 종교를 구하고자 하는 브리감 영의 추구는 오랜 것이었다. 그도 요셉 스미스와 같이 그의 부모의 종교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도덕적이며 근면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다. 그러나 브리감은 도덕적이며 근면한 생활만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한 만족을 추구하였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의문의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는 어느 곳에서 살든지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그룹과 어울렸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에 회복된 교회로 개종한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브리감의 형, 피니아스가 이러한 그룹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예언자의 동생, 사무엘 스미스에게서 물몬경을 한 권받았다. 피니아스는 그의 작은 종교 집단이 “사람을 배도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생긴” 이와 같은 것을 접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을 자세히 읽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였던 잘못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안식일에 그가 그룹 앞에 서서 “이 책에 대하여 채 10분 동안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임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역설하였으며, 끝으로 나는 이 책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나의 말을 마쳤습니다.”

피니아스는 물몬경을 그의 아버지에게 빌려 드렸다. “그가 본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한 부친은 그의 누이 패니에게 빌려 주었는데 그녀는 이것을 보고는 “계시”라고 감탄해 하였다. 그녀는 이 책을 다시 브리감 영에게 주었다.

“나는 2년 동안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그 책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설교집, 3:91, 1852년 8월 8일)

브리감은 이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물몬경을 처음으로 읽게 되자 곧 나는 이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나는 그들이 상식있는 행동을 하는지를 눈여겨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식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들에게 경전에 연관시켜서 발표하게 하였습니다...나는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

할 때까지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설교집, 8:38, 1860년 4월 6일)

약 1년 반이 지난 후 드디어 그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그에게 펜실베이니아주 콜롬비아로부터 일단의 물몬 선교사들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 중 한 선교사는 그를 앉혀 놓고 자신의 간증을 말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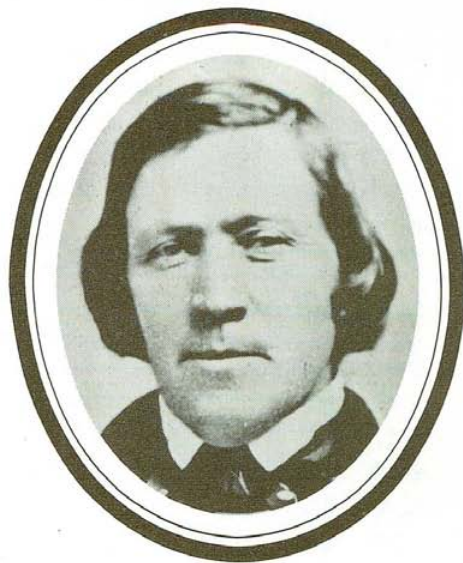
“용변술이나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재능을 갖지도 못하고, 다만 ‘저는 이 물몬경이 진실하며 요셉 스미스가 주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성신의 권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신의 권세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었으며, 빛과 영광과 불사불멸이 임하였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압도되었읍니다. 나는 이 사람의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게 되었읍니다...나 자신의 판단력, 선천적으로 받은 은사, 교육이 단순하지만 힘있는 간증 앞에 머리를 숙였읍니다...나의 온 몸은 빛으로 가득 찼고 나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읍니다.”(설교집, 1:90, 1852년 6월 13일)

브리감은 그의 목공소 뒤에 흐르는 작은 시내에서 그에게 영향력있는 간증을 드렸던 선교사에 의하여 1832년 4월 15일에 침례를 받았다.

브리감 영의 교육관

교육은 좋은 것이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교육은 오만하지 않으면서 긍지를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설교집 11:214)

이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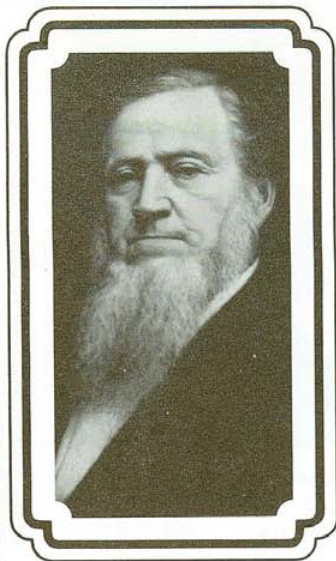


브리감 영 대관장

의 존재와 그 목적을 이해하는 사상가가 되어야 하며,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무지로 공백을 이루지 않고 매일 매일이 유익한 나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고, 우리가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주셨다.(설교집 9:190)

인간이 알고 연구한 모든 예술이나 과학은 모두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인간으로 하여금 과학과 기계 분야에서 것처럼 위대한 성과를 거두게 한 지식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왜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의 지혜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 인간에게 전기를 사용하도록 가르쳤는가? 인

뉴욕주 인근에 위치한 록 학교. 여기서 브리감은 1833년에 전도하였음.



브리감 영
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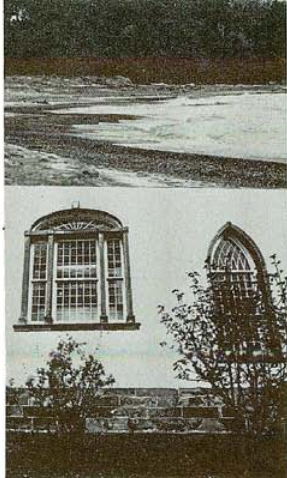
간이 누구의 도움도 입지 않고 그와 같은 위대한 발명을 이룩하였을까? 아니다. 인간은 초월자로부터 지식을 받았다. 또한 위대한 예술이나 과학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어 놓은 개인에게 치하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예술이나 과학도 역시 초월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 지식은 그들에게서 얻어진 것인가? 아니다. 그들이 잔디의 새싹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없고 인위적인 도움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또는 검게 만들 수 없다면 그들은 이 지식을 얻은 것에 틀림이 없으며, 그들은 가난한 자와 무지한 자와 마찬가지로 절대자 곧 초월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지금 세대에 놀라우리만치 이루어진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를 만드는 지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받았는가? 하늘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천체에 대하여 어디에서 지식을 얻었으며 광대한 우주 공간을 꿰뚫

어 보는 망원경을 만드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우리는 모세에게 지식을 주었던 같은 존재, 노아에게 이 세상이 물에 잠겨 사람들이 멸망당하리라고 알려 준 같은 존재로부터 이 지식을 받았다. 서로에게서 받을 수 있는 권세도 그로부터 부여되었으며 이 지구에 관한 모든 심오한 것들과 이 지구와 관계되는 모든 원리를 탐구하는 권세도 그로부터 온 것이다. (설교집, 12 : 257)

말일성도가 갖고 있는 종교는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지식을 구하게 한다. 말일성도보다 더 열심히 진리를 알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설교집 8 : 6)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행복할 상황에 처하든지 아니면 역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설교집, 4 : 287)

우리는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상 : 오하이오주, 이어리호의 호숫가. 선교 여행을 하던 중 브리감과 조셉 영은 여기서 어느 날 오후를 보냈다.

하 : 커틀랜드 신전의 3층으로 된 설교단 뒤에 있는 창. 브리감 영이 설계하고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함.

야 하며 이 교회의 장로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라나는 세대의 머리속에 깊은 인상을 남게 해야 할 주제이다. (설교집 13 : 262)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의 모국어의 터전에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도록 하라. 그 다음에 그들이 학문의 가치를 높이 뻗게 하라. 그들이 모든 부문에서의 참되고 유용한 학문을 부모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라. 자녀들이 모국어를 잘 익히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익히게 하며, 다른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풍속, 태도, 법률, 정부 및 문학에 대하여 공부하게 하라. 그들에게 예술과 과학에 속한 모든 진리를 배우게 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현세에서의 요구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하라. 그들에게 이 지상에 있는 것, 지구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배우게 하라. (설교집 8 : 9)

나는 이 백성이 자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일반 교육의 시설을 마련해 주어 우리의 아들들이 구원의 선교사요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자로서 이 세상으로 내보내질 때 그들이 가장 훌륭한 사회와 교류할 수 있고 지혜있고 지각있게 인류에게 진리의 원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진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받아들인 종교와 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성취, 모든 덕성, 수학이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획득하는 모든 유용한 것은 성도에게 속한 것이며, 성도들은 가능한 한 속히 부지런히 탐구하는 학자에게 과학이 제공하는 지식의 보화를 이용하여야 한다. (설교집 10 : 224)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정신을 향상시키고, 인간을 위하여 보다 많이 봉사하게 하며, 비천한 생활 태도, 저속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치게 해주어야 한다. (설교집 14 : 83)

나는 자녀들이 공부하고 음악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젖는다. 자녀들이 유익한 학문을 교육받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종교, 과학, 사상 등의 면에서 지상의 모든 나라보다 탁월하게 될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리와 원리에 연관하여 필요한 것들을 모두 배우게 하고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라. 어머니는 딸에게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그들이 장차 훌륭한 아내요 훌륭한 어머니가 되게 하라. 자매들은 노동의 경제 원리를 배우고 가정 관리를 배우게 하라. (설교집, 2 : 122-1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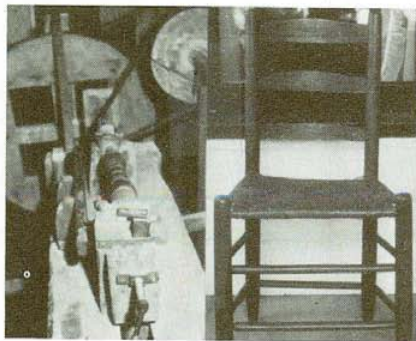


상 : 뉴욕주, 오리리어스에 위치한 여관.
여기서 브리감은 십대 후반기에 무용을 배웠음.

중 : 이곳은 그가 첫번째 아내 미리엄을 만난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하 : 뉴욕주, 멘던에 있는 집의 일부. 1829년에 브리감은 그의 부친 존 영을 위해 이 집을 건축했음.

1829-30년 브리감이 건축한 제재소의 집터와 물레방아용 물줄기가 있던 시내. 바로 여기서 그는 1832년 4월 15일 침례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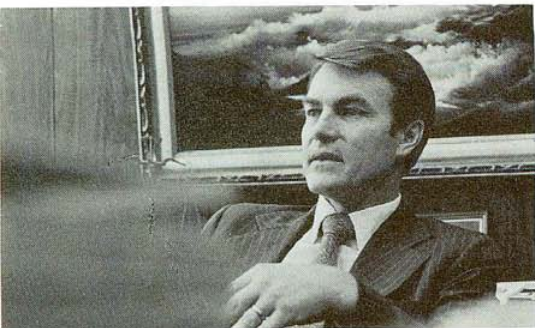
브리감이 멘던에 있는 그의 제재소를 위해 만든 선반.

뉴욕주, 멘던에 있는 동안 브리감이 만든 재래식 의자



헤이든빌에 있는 집. 여기서 브리감은 결혼 조금 후에 살았음.

범세계적인 교육



교회 교육 위원회 부책임자
조 제이 크리스텐슨과 엔사인지
기자와의 대담

기자: 왜 교회는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크리스텐슨 형제: 간단히 말해서 신학 연구원의 목적은 가정을 도와 교회의 청소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품을 개발시키고 양육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자: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성장 범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크리스텐슨 형제: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실시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진실로 영광을 받아 행한 일이었습니다. 1970년 11월에 교회 교육 위원회에서는 전세계의 모든 회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회원 분포와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

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과정의 자료를 번역하여야 하고, 여러 나라에서 가르칠 수 있기 위하여 두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역원을 찾아야 하며, 여러 나라의 안팎에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해의 성과는 실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 첫해에 2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다면 좋은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 3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75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는 첫해에 900여 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도 7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17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51개국(곧 55개국이 될)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금년에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의 수는 295,000명이 넘습니다.

기자: 신학 연구원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크리스텐슨 형제: 지리적으로 가능한 곳에서는 학교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에 와드나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또 다른 기본적인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은 가정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 회원의 수가 적은 곳에서 시행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이점은 지부에 회원이 단 한 명뿐이더라도 종교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생은 주로 각자의 가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다른 일정한 날에 함께 모여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가정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와드나 지부에서는 교사가 부름을 받게 될

니다. 부름을 받은 교사는 반 학생과 만나 학생들이 집에서 한 것을 함께 검토해 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집에서 한 자료, 학습 문제 등을 채점하는 일 이외에 동기를 유발시키고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공과를 발표합니다. 학생은 다시 한 주일 동안 집에서 해야 할 숙제와 자료를 갖고 집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학습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매달 한 번씩 월례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학생들과 교사는 전문적인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청남 청녀 프로그램의 지도를 받아 활동을 하는 동안, 전문적인 교사는 교사들에게 다음 달 활동에 대하여 훈련을 시켜 줍니다.

기자: 학습 과정으로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서는 구약, 신약, 물몬경, 교회사 및 교리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에서는 교리와 성약, 살아 있는 예언자와 그들의 가르침, 구애와 결혼, 선교사 준비 등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기자: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는 주제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주제를 다루거나 접근 방법만이 다른 것입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중등부나 대학부 모두가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전과 그것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대학부에서는 경전에 대하여 좀더 깊은 배경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반면에 중등부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동기 유발의 개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 신학 연구원 교과 과정은 주일 학교 교과 과정과 어떻게 다릅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두드러진 차이점은 교과 과정의 구조와 발표 방법입니다. 보조 조직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교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교사는 반원에게 가르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게 됩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은 주 중에 받는 자료로써 매일 개인 학습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연구원에서는 주일 학교에 비해

필요한 자료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기자: 신학 연구원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물론 양을 늘리면서 질을 향상시키는 것...그리고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것...이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또 다른 큰 목표는 부모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반을 방문하거나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자녀들이 신학 연구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부모가 이와 같은 종류의 관심을 갖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단히 열의를 갖게 되고, 그들의 다른 자녀들도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기자: 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성인 과정은 없습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신학 연구원 대학부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번역 출판부에서 통신 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과정, 즉 물몬경, 신약 등등의 과정에 대한 통신 교재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인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주 중에 정규 과정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대학생의 수가 충분히 있는 대학교 근처에는 신학 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성인이나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정규 신학 연구원 반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가 통신 과정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는 경우에는 신권 지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통신 과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기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항상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인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공부하고 간증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일대 회원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는 가장 개인의 발전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는 개종한 지 3년밖에 안된 어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저는 지부의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주일학교 반에서 복음을 공부할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십대의 제 자녀들은 신학연구원 중등부에 등록하여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복음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복음에 대하여 좀더 많이, 그리고 좀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신학연구원 프로그램은 그에게 이러한 복음 공부에 도움을 크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움은 특별히 일대 회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스테이크의 회원 중에도 복음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 신권 지도자들은 어떻게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 기구와 종교 지도자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종교 교육상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각 학생을 도와야 합니다.

와드 단위에서 감독은 집행 서기의 도움을 받습니다. 스테이크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 서기는 감독단, 스테이크 부장단 또는 고등 평의회 모임의 모임 순서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넣어 토론을 하게 하거나 신권 지도자의 도움과 힘을 요하는 교육상의 문제가 토

의되도록 함으로써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가 주 중 종교 교육을 증진시키는 데에 두어야 하는 관심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블대관장은 “결음의 폭을 넓히자”는 운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신권 지도자, 학생, 부모—에게 복음을 공부하여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셨으며, 신학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을 강화시켜 주는 도구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청소년들은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기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드는 개인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등록금은 없습니다. 학생 활동 회비가 약간 있으며, 교재, 학습 지도서 등 학생이 받는 자료를 학생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주로 학생은 활동과 학습 보조 혜택에 대한 비용만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비용 때문에 복음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성도들이 복음의 정신을 받으면,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예외를 두고 있습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모든 감독이나 지부장은 능력 있는 학생으로서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학생이 학생을 돕는 장학제도를 갖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을 돕기 위하여 수천 불을 모금하였습니다.

기자: 신학연구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속적인 혜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크리스틴슨 형제: 나는 학생들이 신학연구원 프로그램을 따를 때 개인, 와드, 스테이크 그리고 선교부가 성장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필리핀의 마닐

라 스테이크의 어거스토 림 부장이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지를 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스테이크가 존속하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후에 그와 이야기하는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스테이크에도 복음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신학 연구원 출신의 회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에서 지도력을 구축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페루의 선교부장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개월 동안 북미에서 선교사가 올 수 없었습니다. 일년 전 만해도 페루 사람으로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선교사는 두세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45명이 페루인 선교사이며 금년말경에는 100명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각기 모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에서는 선교사의 50퍼센트가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 결과 개종율은 전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신학 연구원이 젊은이들에게 실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신학 연구원의 공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선교사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선 선교 사업을 강조하시는 예언자가 계십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에게 “형제님이 선교사가 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이었다고 대답을 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의 정신을 받으며, 선교사로 나가 봉사해야 한다는 예언자의 음성을 들을 때, 젊은이도 이에 응할 것입니다. 복음을 공부하지 않고 이러한 약속에 마음을 돌리지 않는 젊은이에게는 예언자가 노아처럼 120년 동안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시고 이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이 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현재의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 11월에 교회 교육 위원회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실로 영감을 받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감의 수확을 거두고 있으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복음 공부의 혜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

나의 아들이,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지키기를 배우라.

(엘마서 37 : 35)

인생의 눈을 뜨다



“그것이 저의 생활을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사 과정을 공부할 때 저는 칠판 받아야 한다는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나의 지식과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키고,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할 때 나를 돕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칠판들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이다. 이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에 관한 그들의 느낌은 결코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회 교육 제도가 교회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세계의 젊은 말일성도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맛보고 있다. 앞에 우리는 교회 교육 위원회의 부책임자이신 조 제이 크리스틴슨 형제와의 대담을 실었다.

이 대담에서 크리스틴슨 형제는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의 역사, 그 기능, 그리고 그것의 혜택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이야기는 프로그램 참여자, 그들의 가족, 그들의 와드와 지부, 학교 친구 등,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것이었다.

최근에 신학 연구원 재학생, 졸업생, 그들의 부모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된 적이 있었다. 그 결과로 세계 각처로부터 많은 편지가 날라 들었다.

각 편지는 독일어 중국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써어졌지만 거의가 같은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 중 몇 가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브라질의 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제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이게 된 원인과,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갖게 되었던 요인을 생각하면 저의 생활에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이 미친 큰 영향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 중에서 아마도 가족의 중요성보다 더 저에게 큰 의미를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강화시켜 주는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관하여 페루, 리마에 살고 있는 한 아버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아들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를 시작한 이후에 그의 생활이 크게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이 우리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이 우리 가정 생활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믿습니다.”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 참여는 와드



나 지부에서의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한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 그의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저는 지부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과 만날 수 있는 모든 모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저는 아주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한 것은 신학 연구원 중등부의 힘입니다.”

신학 연구원 학생들로부터 온 편지에 일관된 내용은 이 프로그램에 활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식과 간증이 자랐다는 것이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영생과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간증을 갖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만의 한 젊은이는 말하였다.

“구약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진실로 경전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브라질의 어느 젊은 선교사는 말하였다. “물론경을 공부함으로써 저는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아직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

다. 신약 과정에서 구세주의 생애에 대하여 공부할 때 저는 구세주와의 참된 관계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비회원도 신학 연구원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대만의 어떤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구도자로서 신학 연구원에 등록하였습니다. 신학 연구원은 저의 신앙과 간증을 키워 주었으며,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던 독일 소녀 바바라의 경우를 소개한다. 바바라가 대부분의 시간을 신학 연구원 자료를 공부하는 데 보내자 간호원도 그 자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바라가 간호원에게 그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자 간호원은 그 자료를 구입하였다. 다음해 봄에 바바라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후에 간호원은 교회에 입교하였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신학 연구원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온 편지는 많이 있으며, 더 많은 예를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침례선 교사가 한 다음과 같은 한 마디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은 저로 하여금 인생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

